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 I. 머리말
- II. 평생교육의 학제적 특성
- III. 평생교육에서의 국어교육의 역할
- IV. 국민의 문해력(국어능력) 실태
- V. 국제 문해교육의 동향
- VI. 평생국어교육의 내용 구성
- VII. 맺음말

I. 머리말

세계화 시대에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 다문화사회, 녹색성장사회라 불리는데 특히 평생학습사회라는 말로도 불릴 만큼 장수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 배우고 연마하여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국어교육도 이런 평생교육 시대에 맞추어 개인의 국어능력을 재개념화하고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력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국어교육의 내용과 영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국어교육을 보아야 하고 다양한 학문 분화와 융복합의 시대에 평생교육의 학제간 관점에서 국어교육의 관점과 내용도 다양하게 보아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II. 평생교육의 학제적 특성

인간은 언어적 존재(homo loquens)로서 학습하고 배우는 존재(호모 에

루디티오 homo eruditio)로 불린다. 평생 서로 배우면서 즐기고 일하며 성장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추구하지만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나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현대인의 숙명적 과제이기에 국어교육에서도 평생교육이 중요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전인적 특성과 학문적 복합성 때문에 관련 학문도 다양하여 학문적 융합성 즉 학제성은 필연적이며 이 모든 교육의 성패는 언어능력과 사고력이므로 국어교육의 핵심 도구적 역할도 필연적이다.

1. 평생교육의 다중적 포괄성

인간 교육에서는 사회적으로 정규 교육에 대한 보완적, 대안적, 추가적 목적으로 비형식, 무형식, 우연적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을 좁은 의미로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경험을 총칭”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2013.5.22. 일부 개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 정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넓은 의미로는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하는 것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이념이며 교육 양태상으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포함하고, 교육 영역상으로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 수행과 교육적 선택의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개인의 평생교육 공간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군

1 김한별(2010), 차갑부(2012) 등과 OECD(2013)에서 이런 포괄적 관점을 보여 준다. 유

대교육,² 직장교육, 지역사회 교육, 사이버 교육이라는 5대 영역으로 확장된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이 교육적 공통 목표와 내용을 공유한다.

- ① 인성 교육: 전인교육, 기본 생활교육, 예절 교육, 배려와 존중, 섬김과 나눔의 정신 등
- ② 기본 학습 교육: 기본 이수 능력(언어와 수리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 통합적 사고, 사고력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 ③ 사회 교육: 질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정치 경제 교육 등
- ④ 진로 교육: 재능(소질, 잠재력) 계발 교육, 적성 교육, 직업 교육 등³

위와 같이 학교교육과 공통 특성을 지니는 평생교육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중적 특성을 지닌다(김한별 2014: 35-39).

- ① 성인 교육: 성인 문자 해독과 수리 능력 배양을 위한 성인 기초 교육과 중산층을 위한 자유교양교육으로서의 성인교육이다.
- ② 계속 교육: 각종 직업 연수, 자격증 취득, 재교육 차원의 교육으로 ‘전문성 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CPE)’이란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보수적 성격을 띠므로 혁신에 취약하다.
- ③ 사회 교육: 학교 밖에서의 사회화를 위한 총체적 교육 개념으로 평생

네스코의 홈페이지에서도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을 통한 계속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노력으로 본다.

- 2 군대 교육도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이나 모병제 국가 미국 등에서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고 우리나라도 여군이 점증하고 있어서 청년기의 중요 교육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 3 진로 교육의 내용과 구성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① 자아 교육: 자기 이해, 자기 탐구 교육, 심성 계발, 세계관 확립 교육
 - ② 진로 탐구 교육: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설계 교육
 - ③ 직업 교육: 진로의 예비 체험(인턴 실습), 직업 실무 훈련과 연수(재교육)

교육에 대한 과거의 용어이다.

- ④ 순환 교육: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교육과 직업 능력 계발을 연계한 고용 의도 교육으로 학습과 일의 연계를 강화한 교육이다.
- ⑤ 민중 교육: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 보장과 사회 부조리, 사회적 불평등 개혁 차원의 교육으로 민중 계몽, 민중 의식화 교육의 성격을 띤다.

평생교육을 위한 국어교육을 평생국어교육이라 할 때 이 분야의 교육과정 구성의 철학도 위 5대 특성을 고르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평생교육의 학제적 특성

평생국어교육은 국어국문학이나 국어교육학만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기보다 범교과적, 범학문적 성격을 띤다. 국어과 자체가 다양한 글감을 국어교육적으로 변환하여 가르치고 배우듯 평생국어교육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언어활동을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 평생교육 자체가 다음과 같은 학제적 전통을 특성으로 하므로 이런 전통을 학제간 연구에도 적용해야 한다.

(1) 인문주의 접근: 인문학(언어, 문학, 역사, 철학), 교육학, 종교, 예술 등과 연계

교육이나 국어교육이나 인문학의 전통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듯이 평생국어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근본 문제의식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인문주의적 접근은 다음 세 갈래 접근으로 구분된다.

- ① 교양주의 접근: 인문주의가 자유교양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문적 사고력 함양을 통해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 긍정적 세계관을 갖고 평생을 긍정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의 평생교육은 자유교양교육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강좌가 주부나 은퇴자, 현직 경영인에게 인기가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연계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한 지적 탐구나 전인적 도덕성 함양으로 이어진다.
- ② 인본주의적 접근: 인문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능력 계발을 신뢰하는 인본주의 접근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문주의나 인본주의가 Humanism으로 표현되듯 인본주의는 인간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한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에서 계발하지 못한 인간의 재능과 잠재력을 새롭게 계발하고 자기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현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자기 능력 계발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법을 권장한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선하고 풍부하게 보고 만민평등의 정신으로 인간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을 귀중한 존재로 보는 태도로 자기신뢰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네스코의 평생교육 정신이 이런 철학에 기반한다.
- ③ 종교적 접근: 정체성 탐구의 인문적 전통을 실천하는 한 방안이 종교적 접근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Veritas vos liberabit, 요한복음 8:32)”라는 영원한 구도자의 정신을 반영하는 성구처럼 죽음을 앞둔 노인세대나 실직자와 노숙인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종교적 접근은 유용하다. 평생교육에서 조기 신앙교육이 만년의 신앙교육보다 행복한 삶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종교적 접근은 유용하다. 종교기관들이 경로대학, 복지시설, 재활교육기관을 운영함도 좋은 사례이다. 가령, 노숙인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성프란시스 대학’이 노숙인에게 경제적 가난보다 정신적 가난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함을 믿고 물질적 지원보다 인문학적 각성을 통해 자포자기의 상

황을 극복하고 기술 자활을 돕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사례도⁴ 이를 잘 보여 준다. 이 과정은 미국 빈곤계층을 위한 ‘클레멘트 코스(Clemente Course)’⁵를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김한별 2014: 45, 46).

(2) 진보주의 접근: 사회학, 사회교육학, 교육철학 등과 연계

미국의 실용주의, 진보주의 전통이 존 듀이에 의해 발전하였듯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1916)에서 말한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학교교육을 넘어 사회 현장에서 다양하게 평생교육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듀이의 진보주의적 교육철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과 연계됨을 보여 준다.

(3) 행동주의 접근: 사회과학, 심리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과 연계

인간 행동의 조작적 변화를 탐구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생의 전환기에 생애 주기형 교육에서 인간의 과거 행동을 교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응하려는 인간에게 유용하다. 대부분의 직업 교육, 전문성 계속 교육은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과 밀접하다. 아울러 과학문명의 발달로 다양한 직업이 분화되면서 자연과학, 공학, 의학 등의 학문 영역별 직업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당 분야의 문해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학제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4) 생태학적 접근: 자연과학, 환경학, 생태학 등과 연계

오늘날 교육은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 존중의 학

4 남은주(2012), 자본주의의 비효율, 노숙인과 인문학이 만나다. 『한겨레21』 939호 참고.

5 1995년부터 미국 언론인인 얼 쇼리스(Earl Shorris)가 빈민층, 노숙자, 마약중독자, 죄수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인문학’ 강좌로 그는 철학, 역사, 시, 미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글쓰기 등의 인문학을 가르쳤다.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고병현, 이병곤, 임정아 공역(2006) 참고.

습 생태계 관점에서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지구 환경 생태계가 새로운 생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교 공동체도 학교의 물질 주의를 극복하고 학습공동체를 회복하며 전 지구적 지식연대를 이룰 필요가 증대되고 있어 평생교육은 종합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된다(한송희 2001).

3. 평생교육의 성인교육 특성

맬컴 놀스(Malcolm Knowles, 1913-1997)는 『성인교육의 현대적 실천: 안드로고지 대 페다고지(*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Andragogy vs. Pedagogy*, 1970)』라는 책에서 아동교육을 페다고지(pedagogy) 즉 아이를 가르치는 기술의 학문(the art and science for teaching children)이라 하고, 성인교육을 안드라고지(andragogy)라 하며 성인의 배움을 돕는 기술의 학문(the art and science for helping adults learn)이라고 구분하여 양자를 가르침(teach)과 도움(help)의 대비로 설명하였다. 즉 성인교육은 학습 주체가 성인으로서 지도자는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은 성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김한별 2010: 65-88). 이러한 평생교육의 성인교육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성숙성: 청소년기와 달리 자기 주도적 판단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하여 학습 동기와 목표를 설정한다. 성인으로서의 성숙성과 자아 존중감과 강력한 학습 동기, 강력한 정체성 추구가 특징이다.
- ② 경험성: 청소년기와 달리 일정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였기에 학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험 학습의 특성을 지닌다.
- ③ 전환성: 기존 사고를 넘어 발상과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여 전환 학습의 성격을 띤다.⁶

6 『조선일보』와 서울대아시아연구소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 만든 세계 창조성 인덱스와

- ④ 성찰성: 자신의 삶과 학습 경력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으므로 성찰 학습의 성격을 띤다. 성찰 학습은 내용 성찰, 과정 성찰, 전제 성찰이 있다.
- ⑤ 개혁성: 기성 체제의 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학습을 추구할 수 있다. 기성 가치의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는 남미의 인간 해방 추구의 교육⁷이나 탈학교교육⁸이 이에 속한다.

미국 코넬 대학의 세계 혁신(개선) 인덱스를 기반으로 '종합 창의(創意) 지수'를 개발했다. 분석 결과 창조성과 혁신성을 골고루 갖춘 1위 국가는 스웨덴, 2위는 스위스, 3위는 미국, 4위는 핀란드, 5위는 네덜란드였다. 이스라엘은 18위, 한국 21위, 일본 23위, 중국은 44위로 나왔다.

한국의 혁신성은 16위, 창조성은 26위였다. 일본의 혁신성은 20위, 창조성은 29위, 중국의 혁신성은 32위, 창조성은 54위였다. 미국의 혁신성은 5위, 창조성은 2위로 종합 3위였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창조성 결정 3요소로 기술(technology)·재능(talent)·다양성(tolerance)을 들었다. 다양성은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해 주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아시아 국가는 높은 교육열로 기술과 재능은 서구보다 높지만, 다양성 수준이 매우 낮았다.

기술에선 일본 2위, 한국 8위, 중국 25위였지만, 다양성에선 일본 61위, 한국 62위였다. 다양성 1위 국가는 캐나다,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네덜란드였다.

사회적 다양성이 낮으면 그 사회의 '창조적 효율'이 떨어진다. 각 개인이 똑똑해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도 해도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만 나온다. 아이디어의 양은 적더라도 전혀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사회 전체적 아이디어의 크기도 늘어난다.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창조성을 높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고 효율적이다. 이상은 "위아래 따지는 아시아 문화가 天才를 평범하게 만든다"(2014.8.23. 『조선일보』 특집, 서울대 심리학과 김청택 교수 글)의 인용 내용이다.

- 7 브라질의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1997)의 해방학습은 부조리한 남미사회에서 나를 속박하는 일체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주체로서 자아를 완전히 해방시켜 학습하는 태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변혁하는 주체로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그는 고객에게서 예금받아 예치해 두는 은행원처럼 교사에게서 지식을 받아 저장하는 학생의 은행예금식 교육을 극복하고 현실 사회 문제, 모순, 억압, 불평등을 인식하고 인간 해방을 궁극 목표로 하는 의식화 교육을 위해 문제 제기식(problem posing education) 교육을 주장한다.
- 8 이반 일리히(Ivan Illich, 1926-2002)는 탈학교사회를 주창하면서(1995) 학교가 교육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뜨리고 학교를 넘어서 자유롭게 가르치는 사회 문화 체제를 추구하여

- ⑥ 실용성: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성보다는 냉혹한 사회 현실에 맞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4. 평생교육의 국내외 동향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의 가치를 강조해 온 것은 유네스코로 제1차 회의(1949), 제2차 회의(1960), 제3차 회의(1972), 제4차 회의(1985), 제5차 회의(1997), 제6차 회의(2009)를 통해 10여년마다 성인교육의 국제적 동향을 조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1970년에는 ‘세계 교육의 해’를 선포하였고, 1996년에 나온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의 네 유형으로 ‘앎을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위를 위한 학습(learning to do),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를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을 들고 있다. 최근 2009년 브라질의 6차 회의에서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국제보고서’를 만들어 154개국의 성인교육 현황을 정리하였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적 학습을 다양하게 조명하였다(김한별 2014: 57-63).

오늘날의 성인교육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의 측면이 강하다. 생활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의 만족, 인적자원의 개발, 변화에 대한 준비 효과를 가져오는 인적자원 개발의 요소로는 인적개발 요소 세 가지(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와 인적관리 요소 일곱 가지(직무 설계, 인적 자원 계획, 선발 및 직무배치, 인적자원 정보체계, 보상 및 장려, 근로자 복지 후생, 노조 관계)를 종합하여 10대 요소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인적자원의 수레바퀴(HR Wheel)라고 한다.

UNDP(유엔개발기구)가 발간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3’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가 높은 상위 6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30위인데 1960년~1995년 사이

학습망(learning web)의 구축을 추구한다.

HDI지수를 크게 향상시킨 국가로는 세계 2위 국가로 평가하였다. 같은 기간 HDI지수를 크게 향상시킨 세계 1위 국가는 말레이시아, 3위 태국, 4위 포르투갈, 5위 브라질이라고 한다. 그러나 1995년을 기준으로 이들 국가의 HDI 절대치는 모두 우리보다 낮아, 상위 30개국 가운데 HDI지수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HDI지수는 각국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러한 통계치는 대한민국이 반세기 근대화 기간 동안 ‘삶의 질’도 비약적으로 계발시켰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북유럽 국가(덴마크 15위, 벨기에 17위, 핀란드 21위)보다 높다. UNDP는 대한민국이 1990년~2012년 기간 동안 HDI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로 본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질 행복지수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에 의해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내용이 전부 개정되며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제2조). 법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두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등도 성인의 능력과 직업교육, 인적자원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나 문해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개인 교양 여가형 프로그램, 개인 소질 계발형 프로그램, 사회참여형

9 최근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179국 중 한국 26위, 2010년 180국 중 한국 12위, 2011년 180국 중 한국 15위,
2013년 180국 중 한국 12위 0.909(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음), www.undp.org 자료실 보고서 참고.

프로그램, 사회적응형(고용 증진형)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정책 사항들이다.

- ① 평생교육법: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명시
-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2008년 2월 설립(평생교육법 19조)
- ③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설치(21조)
- ④ 평생학습계좌제(평생교육법 23조): 개인별 학습 이력 누적 관리
(www.all.go.kr 참고)
- ⑤ 평생교육사 1-3급 양성(24조)
- ⑥ 문자해독교육 실시 명문화(39조, 40조)
- ⑦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시행
- ⑧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역사회 수준에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01년 경기 광명, 전북 진안, 대전 유성구의 3개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래 2013년까지 118개 도시를 지정하였다.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 구축,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지원, 평생학습문화의 정착 확산을 목표로 한다. 2001년부터 전국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 ⑨ 학습 동아리: 평생교육에서 다양한 학습 동아리 구축을 추진하는데 그 유형은 심화 학습형, 전문 탐구형, 문제 해결형으로 나뉜다.
- ⑩ 평생교육 종합포털 ‘늘배움터’ 개통: 평생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교육동기는 (재)취업준비, 직업 능력 계발, 지식과 교양 함양, 여가시간 활용, 가사 능력 계발, 일상생활 기술 습득, 친교, 기타 등 다양하다. 2014년 12월 교육부에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개장한 ‘늘배움터 누리집(www.everyday.go.kr)’에는 평생교육의 영역을 “취업/창업, 스포츠, 외국어, 자격증, 음악/미술, 컴퓨터, 인문교양, 생활/경제, 시민참여, 건강/의료, 한글/한문, 학력보완”의 영역으로 나뉘 제시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행하는 ‘2013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pp. 52-62)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보여 준다. 권두에 실린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로 2007년에 29.8%에서 5.8%p 증가하였고 형식교육 참여율은 2007년 5.7%에서 2012년 3.5%로 2.2%p 감소하였지만,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2007년 26.4%에서 2012년 33.1%로 6.7%p 증가하였고, 직업 관련 비형식 참여율은 2007년 10.5%에서 2012년 15.4%로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평생교육에서의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과는 모든 교과와 도구로 기능하면서 아울러 자체 목적인 정신적, 지식적, 문화적 학습 목표를 가지는 교과이다. 이는 국어과가 평생교육의 기초로서 개인과 국가공동체의 언어적,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는 국책 교과이기 때문이다. 국어과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를 다루는 정신 교과(가치, 인문 교과)이며, “나는 모어인 한국어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를 다루는 지식 교과이며, “나는 국어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를 다루는 문화 교과이며, “나는 국어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어로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국어로 누구와 얼마만큼 소통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도구 교과이다. 따라서 이런 교과 특성의 다양성은 평생교육의 학제성과도 연계된다(민현식, 2005).

표 1. 국어과의 교과 특성

교과 성격	대목표 특성	세부목표 특성	목표 질문	목표 인간	국어교육에의 실제 적용
정신 (가치, 인문) 교과	(1) 정체성	민족성 세계성(타 문화) 지역성(방언문화)	(1)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국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한국인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 한국적 인간)	국어의 기원과 발달사 국가와 국어의 관계 한국사 속의 한국어 표준어와 방언 문화 한국인의 언어 관습, 민속
	(2) 가치성	성실성 책임성 인성 공익성(이타성) 윤리성 (정보·과학·생명윤리)	(2)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의 원리와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국어를 통해 왜 사는지 아는가?)	윤리인 (윤리적 인간)	탈 이념적, 인성교육적 내용(도덕, 윤리 교과와 연계), 언어 예절, 언어윤리, 언어철학적 내용 문학의 교훈성, 윤리성
지식 교과	(3) 지식성	기능성 사실성 역사성	(3) 나는 국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아는가?	지식인 (지식적 인간)	문학사, 국어학사, 국어사 수사학 화법, 작문, 독서 영역의 기능적, 사실적, 역사적 지식
도구 (기능) 교과	(4) 사고성 (내적 수행)	창의성, 합리성 논리성, 통합성 균형성	(4) 나는 국어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고인 (생각하는 인간)	언어의 합리성, 논리성, 창의성 통합과 균형적 사고 전략적 언어 사용
	(5) 소통성 (외적 수행)	사회성 언어성 (언어능력:모국어, 국제어(영어), 외국어 능력) 적절성, 정확성 간결성, 효율성	(5) 나는 국어로 누구와 얼마만큼 소통할 수 있는가?	사회인 (사회적 인간)	단일언어문화, 다민족문화, 이중언어문화에 대한 이해 전통언어문화 이해(한자 문식) 외국어, 외래어 문제와 순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이해 가족, 학교, 기업, 미디어 등의 의사소통 구조 이해
	(6) 직업성 (직업 수행)	기술성, 정보성 과학성, 신지식성 소명성, 적응성	(6) 나는 국어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인 (일하는 인간)	직업 언어에서 4대 기능과 보기, 보이기 능력의 원리와 전략 이해 언어생활의 과학성 추구, 비효율성 제거 직업, 과학의 언어문제 탐구
문화 교과	(7) 문화성	인문성 (문학·역사·철학의 이해) 전통성 예술성	(7) 나는 국어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가?	문화인 (문화적 인간)	예술성, 쾌락성(문학의 창작, 표현교육)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 국어 인물사, 국어 사건사 언어 관습(관용 표현) 속담, 수수께끼, 언어유희 이름문화(성명, 지명 문화)

위와 같은 국어 교과와 다양성이 보여 주는 평생교육적 학제성을 개인의 학습능력이 수용하려면 핵심능력은 문해력이므로 국어과는 평생교육에서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핵심 도구 교과로서 평생교육이 강조될수록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입시용 국어교육이 아니라 평생 국어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 평생국어교육의 토대가 되는 학교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근년에 이루어진 OECD(2013)의 세계적 문해력 조사 보고서(2013 PIAAC 보고서)는 문해력 증진을 위해 모어교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보여 주며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성인의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 모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IV. 국민의 문해력(국어능력) 실태

1. 한글 문맹 퇴치 신화의 이면과 실상

그동안 우리는 한글 문자 해독으로 문해력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50년대 문교부의 문맹 퇴치 결과 보고에 만족하여 문해력 문제는 우리나라와 멀게 보았다. 여기에는 한글 민족주의, 한글 우수성에 대한 과신도 한 몫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실 속에 문맹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볼 때 오늘날은 1950년대 식의 피상적 조사 수준으로 문해 문제를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엄훈, 2012: 16-31). 이런 결과로 문해 조사의 양극 현상 즉 단순 문해력은 높아도 실질(기능) 문해력은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 문해력이 높다고 문맹 퇴치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실용 문해력도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한국인의 문해력 실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단순 문해력은 높다(단순 문맹률은 낮다)

일제하 문맹률 80-90%, 해방 후 78% 수준에서 국어교육, 한글교육 덕분에 한글의 기적으로 한강의 기적도 가능하였다. 국립국어원(2008) 조사에서 단순 문맹 즉 문자를 읽을 줄 모르는 완전 비문해자는 1.7% 정도로 나왔다.

(2) 실질 문해력은 낮다(실질 문맹률은 높다)

청소년 대상의 문해력 조사인 2012 PISA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의 문해력은 상위권이지만 중장년 세대의 능력 저하로 성인 전체 문해력 조사 결과인 2013 PIAAC 보고서에서는 한글의 우수성, 높은 국민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질 문해력이 중하위권이다. 국어교육의 분발과 각성을 통해 대대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3) 한자 문해력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최저이다

한자교육 위축으로 국민의 한자 문해력은 동아시아 최저 수준이다. 국민의 한자교육 요구는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80%대로 높는데(국립국어원, 2005, 2010) 이를 정책화하지 못한 데 원인이 크다.

2. 문해 개념의 진화

문해(literacy)의 개념은 단순 문해에서 기능 문해를 넘어 비판 문해, 전문 문해의 개념으로 변천해 왔다.

(1) 단순 문해

1970년대 이전에는 단순 문자 해득력만 측정하는 시대로 한국에서는 문교부의 문맹률 조사에서 단순 문해(문자 해득 수준) 조사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문맹률 조사는 1945년 78%, 1948년 41%, 1953년 26%, 1956년 10%, 1958년 4.1% 대로 낮아진다(엄훈, 2012: 17). 1948년 건국 후 의무

교육 시행으로 1960년의 의무취학률 96% 덕분이다. 1950년대 문교부 조사는 문해력을 초등 2학년 수료 정도의 국문 해득력(단순 문해)과 1에서 10까지의 셈 능력 정도로 측정하는 단순 문해력 측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실적 보고용이라 하위 행정단위에서의 부실조사 문제가 있었다.

(2) 기능 문해와 전문 문해

유네스코는 이미 1950년대부터 단순 문해와 기능적 문해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1986년부터 세계 비문해 해소 운동을 추진하고 1990년에 ‘세계 문해의 해’를 선포하였다. 문맹퇴치운동국가에 주는 세종 문해상(King Sejong Prize) 시상식을 한국 정부 출연으로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한국도 한국문해교육협회가 1992년에 출범하였다.

한국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1989, 1990)의 한국인 13세 이상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에서 문해력을 ① 초보적 문해, ② 3R 기초 문해(초등 저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쓰기, 셈하기), ③ 생활 기능 문해(일상생활 대처 문해 능력), ④ 영역별 전문 문해(제반 사회 구성 영역별 기본 지식과 기능)으로 나누었다. 이 조사에서 5.9%가 완전 문맹, 기초 비문해자(기능적 문맹)가 9.1%로 나왔다.

(3) 산문 문해, 문서 문해, 수리 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부터 국제 성인 문식성 조사의 문항 구성을 신문·광고문·소설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산문 문식성(prose literacy), 지도·표·그래프·그림 등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정렬하거나 파악하는 문서 문식성(document literacy), 기본적인 수량 계산 능력인 수량 문식성(quantitative literacy)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세 가지 문해력은 5단계로 등급화하여 최저 문해력 수준은 제1수준, 낮은 문해력 수준은 제2수준, 일상적 생활이 가능한 문해력 수준은 제3수준, 고도의 문해력 수준은 제4수준과 제5수준을 둔다. 한국은 이회수 외(2001)의 중졸, 고졸, 대졸 대상 조사에서 대졸자 곧 고학력자의 문해력 수준이 OECD 국가에서

끝져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이희수 외(2002)에서 행한 문해력 조사에서는 초등 6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기준으로 3학년 수준도 고려한 문항을 구성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세 능력을 조사해 ① 기초 1수준(정답률 20% 미만), ② 기초 2수준(20점 이상-80점 미만), ③ 기초 3수준(80점 이상)으로 하였는데 한국 성인 완전 비문해자는 8.4%, 기능적 문맹 24.8%로 나왔다.

(4) 비판 문해, 문제 해결력

1990년대 유네스코는 ‘국제 문해의 해’를 맞아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세계 선언’을 공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해 교육은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의 개념을 표방하였다. 기능 문해를 벗어나, 국가 및 세계 시민 소양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한 ‘비판 문해(critical literacy)’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브라질의 교육 해방운동을 주창한 프레이리(Freire)의 의식화 개념까지 확장된다.

이처럼 문해 개념은 문자 해독 수준의 ‘단순 문해’에서,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 문해’를 거쳐 기초 직업 능력과 계산 능력과 같은 ‘기능 문해’를 거쳐 시민으로서 사회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비판 문해’에 이르기까지 확대 해석되어 왔다. 오늘날은 정치, 경제, 금융 등 전문 영역의 이해가 쉽지 않아 전문 영역별 문해력도 중요하게 요구된다(박인중, 2009).¹⁰

현재 OECD에서 제시하는 PIAAC 문해력의 개념은 다음 도표에서처럼 읽기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력의 3대 요소로 심화되어 있다.¹¹

10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은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21세기형 문맹이고, 글을 못 읽는 문맹(illiteracy)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는데 한국 사회도 금융 교육이 부실해 금융 문맹을 낳고 빚 무서운 줄 모르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한다(조선일보 2015년 3월 14일자 <금융문맹> 특집 기사 참고).

11 OECD의 PIAAC 보고서에 명시된 literacy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Literacy: Literacy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information from written

표 2. Summary of assesement domains in the Survey of Adult Skills(PIAAC)

	Literacy (Reading Components)	Numeracy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Definition	Ability to understand, evaluate, use and engage with <i>written texts</i> to participate in society, to achieve one's goals, and to develop one's knowledge and potential.	Ability to access, use, interpret and communicate mathematical information and ideas in order to engage in and manage the mathematical demands of a range of situations in adult life.	Ability to use digital technology, communication tools and networks to acquire and evaluate information, communicate with others, and perform practical tasks.
Content	Texts are characterised by : Medium ▶ <i>Print-based</i> ▶ <i>Digital</i> Format: ▶ <i>Continuous or prose texts</i> (narration, argumentation or descriptions) ▶ <i>Non-continuous or document texts</i> (tables, lists, graphs) ▶ <i>Mixed texts</i> (combination of prose and document elements) ▶ <i>Multiple texts</i> (juxtaposition or linking of independently generated elements)	Mathematical content, information and ideas: ▶ <i>Quantity and number</i> ▶ <i>Dimension and shape</i> ▶ <i>Pattern, relationships, change</i> ▶ <i>Data and chance</i> Representations of mathematical content: ▶ <i>Objects and pictures</i> ▶ <i>Numbers and symbols</i> ▶ <i>Diagrams, maps, graphs, tables</i> ▶ <i>Texts</i> ▶ <i>Technology-based displays</i>	Technology: ▶ <i>Hardware devices</i> ▶ <i>Software applications</i> ▶ <i>Commands and functions</i> ▶ <i>Representations</i> (text, graphics, video) Nature of problems: ▶ <i>Intrinsic complexity</i> (number of steps, alternatives required for solution, complexity of computation and/or transformation, number of constraints) ▶ <i>Explicitness of the problem statement</i> (largely unspecified or described in detail)
Cognitive strategies	▶ Access and identify ▶ Integrate and interpret (relating parts of text to one another) ▶ Evaluate and reflect on	▶ Identify, locate or access ▶ Act upon and use (order, count, estimate, compute, measure, model) ▶ Interpret, evaluate and analyse ▶ Communicate	▶ Setting goals and monitoring progress ▶ Planning ▶ Acquiring and evaluating information ▶ Using information
Contexts	▶ Personal ▶ Work-related ▶ Community ▶ Education	▶ Everyday life ▶ Work-related ▶ Society & Community ▶ Education	▶ Personal ▶ Work-related ▶ Community

texts in a variety of contexts to achieve goals and develop knowledge and potential. This is a core requirement for developing higher-order skills and for positive economic and social outcome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reading literacy to be closely linked to positive outcomes at work, to social participation, and to life-long learning.

또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Problem solving in technology-rich environments: This refers to the ability to use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and accomplish complex tasks. It is not a measurement of “computer literacy”, but rather of the cognitive skills required in the information age – an age in which the accessibility of boundless information has made it essential for people to be able to decide what information they need, to evaluate it critically, and to use it to solve problems. In this survey, higher-order skills are identified along with basic proficiency. www.oecd.org/site/piaac.

이상을 종합하면 현대의 문해력은 다음 다섯 개념으로 확장되어 있어 평생국어교육도 이런 확장된 문해력 함양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① 단순(초보적) 문해력: 문자 해독, 숫자 해독의 초보 수준
- ② 기초적 문해력: 기초적 담화 독해 능력으로 산문 해독, 문서 해독, 수리 해독 능력
- ③ 기능적 문해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종합 능력
- ④ 전문적 문해력: 정치, 경제, 과학 등 제 분야별 영역 전문용어와 담화의 종합 이해력
- ⑤ 사회적 문해력(시민 소양):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 문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 능력

3. 한국의 문해력 실태

우리나라가 한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문해, 전문 문해, 문제 해결능력 차원의 문해력에서는 결코 높지 않고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다음의 여러 조사에서 알 수 있다.

(1) 통계청(2010)의 저학력 문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20세 이상 초등·중학수준 미만 저학력 성인 인구는 국민의 15% 수준인 577만 명(통계청, 2010)이다(초등교육 잠재수요자 1,922,874명, 중학교교육 잠재수요자 3,849,177명)이다. 따라서 이들 저학력 인구는 문해교육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다.

(2) 국립국어원(2008)의 문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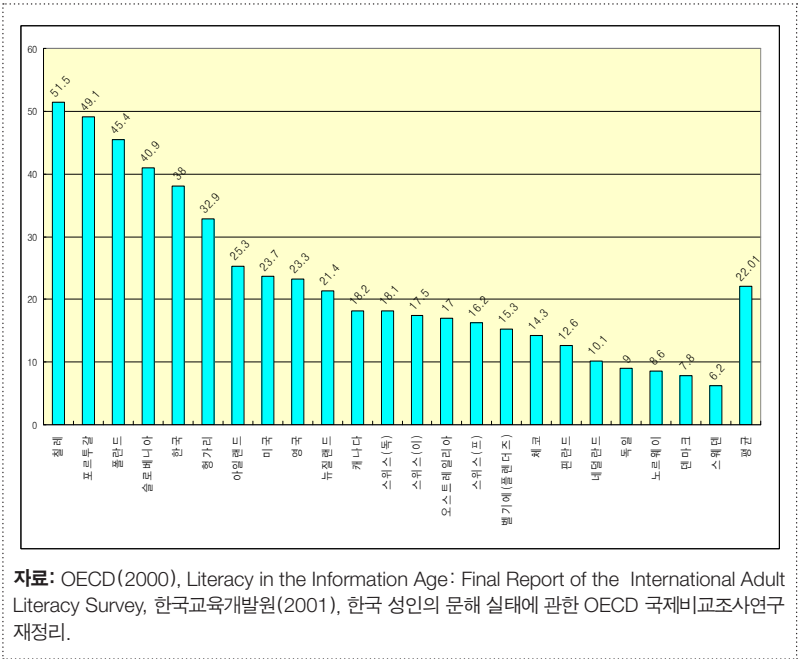
국립국어원(2008)이 전국 16개 시·도의 19~79세 성인 12,137명 5,212가구를 대상으로 비문해율을 조사한 결과,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는 '완

전 비문해자’는 성인의 1.7%, 약 62만 명으로 나타났다.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이해력이 부족하여 남의 도움이 필요한 반문해자(半文解者)가 성인의 5.3%(약 200만 명)로 보아 비문해자와 반문해자를 합하면 국민의 7%(260만 명)를 최소한의 비문해자로 볼 수 있다.

(3) 이희수 외(2001), OECD ‘국제성인문해력조사’(Interna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기능 문해력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문해력을 측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를 2000년에 국내에서 중졸, 고졸, 대졸별로 수행한 결과 대졸 학력자들의 문해력이 OECD 최저 수준으로 나와 고학력자일수록 국어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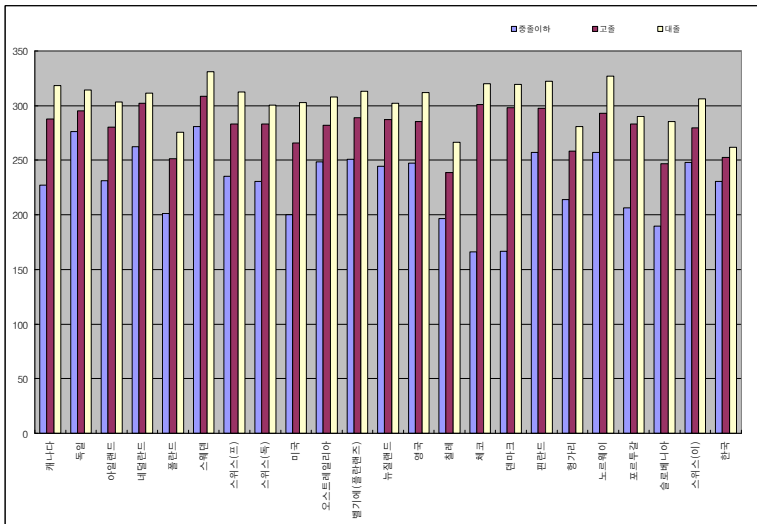
표 3. 문서 문해 1단계(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성인의 비율



문해력은 성인의 능력(competency)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인데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ALS) 결과 우리나라는 문서 문해 1단계 비율이 38%로 하위 5등을 보였다. 20개국 중 14개국의 성인 22% 이상이 5단계에서 1단계인 최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수준 1단계 성인이 15%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스웨덴조차 6.2%의 성인이 심각한 문해 능력의 부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낮은 문해 능력이 모든 국가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가조차 많은 성인들이 낮은 문해력을 보이며, 국민 전체의 20-30% 수준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문해 퇴치 문제는 보편적 국가 문제임을 보여 준다.

표 4. 성인의 학력별 문해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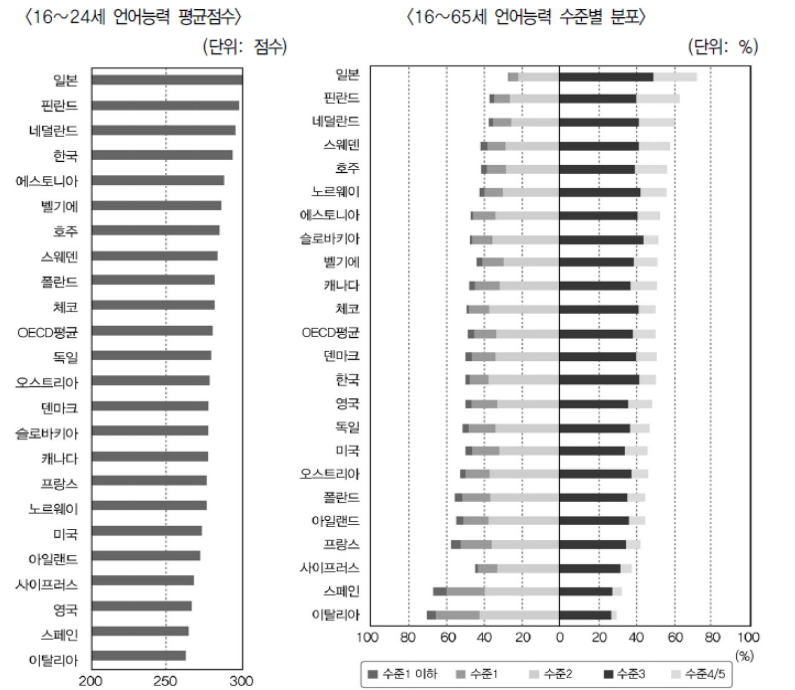
자료: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한국교육개발원(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조사 연구 재정리.

또한 앞의 <표 4>에서처럼 대학 졸업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스웨덴이 3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 핀란드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258.9점으로 칠레의 266.2점보다 낮아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인 고학력자의 국어능력에 큰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4) OECD(2013),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문제해결력(Problem-Solving) 문항으로 구성된 제1회 PIAAC 조사가 한국 등 24개국에서 2012년 실시되었고, 2013년 결과가 나왔다.

표 5. 2013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국제비교



주: 국제 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자료: 교육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1차 OECD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 발표(2013.10.)

조사 결과 한국인의 언어 능력은 평균 273점(500점 만점)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6~24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전체 4위로 상위권이지만 35~44세 연령대부터는 OECD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55~65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24개국 중 21위에 머물렀다. 최고 연령층(55~65세)과 최저 연령대(16~24세) 간의 점수 차이는 참여국 중에서 가장 커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장년기를 고려한 평생국어교육의 대책이 요구된다.

(5) 국립국어원(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국립국어원(2013)에서 국민의 국어능력 실태를 조사했는데 영역별로는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은 1,416명, 쓰기 영역은 1,500명, 읽기와 문법 영역은 2,916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000점 만점에 평균 579.62점이 나왔는데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의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표 6. 전체 국어 능력의 수준 등급별 분포

영역	수준	기준 점수	명	%
전체 국어 능력	우수	781.2 이상	347	11.9
	보통	579.7 이상	975	33.4
	기초	372.0 이상	1,338	45.9
	기초 미달	372.0 미만	256	8.8
계			2,916	100.0

영역별 평균 점수는 듣기, 읽기, 문법, 말하기, 쓰기의 순으로 능력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읽기, 문법’은 보통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말하기, 쓰기’는 기초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는 기초 이하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각 64%, 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연령별 능력 차이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언어 능력 점수가 낮아지는 현상은 PIAAC의 2013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현

상이라 성인 문해 교육이 학교교육은 물론 성인 재교육 차원에서 내실을 기해야 함을 보여 준다.

표 7. 전체 국어 능력의 영역별 수준 등급 분포

비고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
듣기 (150점 만점)	분할 점수	123.0 이상	123.0~97.1		97.1~66.4
	실제 평균		108.88		66.4 이하
읽기 (300점 만점)	분할 점수	242.3 이상	242.3~173.3		173.3 ~106.5
	실제 평균		190.66		106.5 이하
문법 (150점 만점)	분할 점수	117.8 이상	117.8~87.4		87.4~54.0
	실제 평균		88.14		54.0 이하
말하기 (150점 만점)	분할 점수	104.9 이상	104.9~78.6		78.6~51.6
	실제 평균			69.79	51.6 이하
쓰기 (250점 만점)	분할 점수	193.3 이상	193.3~143.3		143.3~93.5
	실제 평균			122.07	93.5 이하

(6)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2010)의 국민언어의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심리의식을 보여 준다. 가정 언어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35.9%)가 가장 많고,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8.9%)로 나타나 64.8%가 가정교육의 부재를 시인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겨우 25.1%에 불과하고 ‘시대에 뒤진 교육을 받았다’도 10%라 가정교육 부재가 실감난다.

학교 언어를 책임지는 국어교육에 대한 인식도 ‘언어생활에 매우 도움되는 교육을 받았다’(15.5%), ‘언어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36.7%)라 긍정 응답이 52.2%로 겨우 반수를 넘었고, ‘좀더 확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21.2%),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6.4%),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받았다’(9.9%)라는 부정적

응답도 47.5%라 국어교육의 불신도 절반에 이르러 국어교육 정책의 개혁도 절실하다.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문제점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 정책’(67.1%), ‘시험 위주의 교육’(56.1%)으로 나오고,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수준’과 ‘국어 교사의 자질’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민의 언어정책 의식도 바뀌어 국어교육정책과 밀접한 외국어정책을 보면, 바람직한 영어 교육 실시 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39.8%), ‘5~6세부터’(24.0%) 순이라 63.8%가 조기교육을 희망하고 현행(초등 3학년)은 20.3%에 불과했다. 이런 영어교육의 조기교육 추세는 상대적으로 정책에서도 영어교육 예산은 막대하지만 국어교육 투자 예산은 미약하여 국어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므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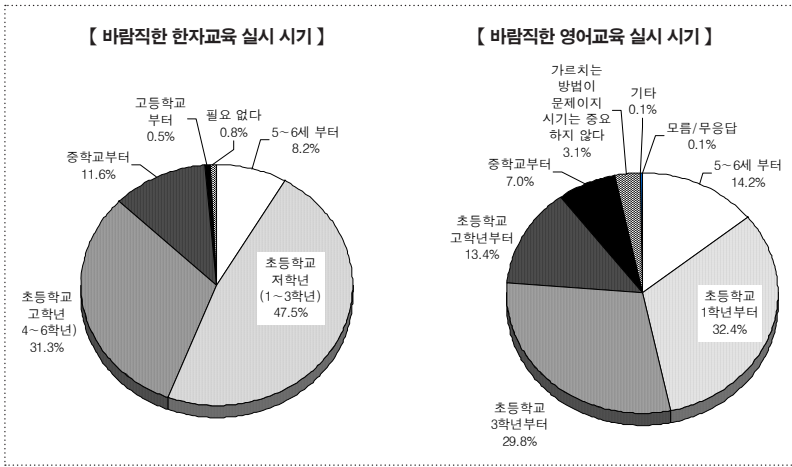
(7) 이민자 문해력 문제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국 국적 취득자 등 외국인 주민 인구 증가로 약 170만 명(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도 한국어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1년에 2만 명 응시하여 1만3천 명 정도 승인받고 있는 귀화자를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자 연수 사업 등이 있다.

(8) 한자 문해력 문제와 조기 영어교육 의식

최근에는 한글전용문화가 거의 정착되면서 한자 교육이 위축되고 한자 문맹이 50대까지 일반화하면서 국민의 고전 소양 부실, 국한문학, 국사학 수준의 저하 우려, 국학 후속세대 양성의 위기, 한자문화권에서의 고립 등을 우려하는 한자 문맹화 현상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한글전용과 한자교육은 별개 문제라는 기존의 정책 관점에서 초등 한자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 한자교육을 초등교육에서부터 시행

표 8. 국민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 2005)



하라고 요구하는 비율이 80%대로 나타난다. 조기 영어교육 의식도 상당히 개방적이다.

V. 국제 문해교육의 동향

오늘날 비문해(문맹) 문제는 보편적 세계 현상이다.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언어 현상이 복잡해지고 말과 글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교육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나타나 지적 낙오가 경제 낙오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 사정, 국외 이주(이민, 난민 등)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 현지어 부적응 등으로 인해 비문해자로 전락하고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사회적 낙오층이 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민의 문해 문제와 이주 외국인의 문해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내국인의 모어 능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이주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 사회통합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본다.¹²

미국은 성인기초교육법(Adult Basic Education Act, 1966)을 제정하였고, 국가문해법(National Literacy Act, 1991), 성인교육·가족문해법(Adult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Act, 1998)을 제정하였다. 1970년대에 문해력 조사를 시작하였고, Kozol 조사 보고서(1985)에 따르면 미국 성인 1/3인 6천만 명이 기능적 문맹 상태라고 진단한 바 있다. 2003년부터는 전국성인 문해력평가(NAAL)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이민자 언어적응을 지원하고 낙오 학생 예방을 위해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문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시 정부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을 수정해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2003)’을 연방법으로 제정하였다. 이 제도는 주 정부가 3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능력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이루도록 책임을 져야 하며 연방정부는 학업 수준 향상 정도에 따라 주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다. 교실당 학생수가 작아지면 교사가 학생 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늘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교실 정원을 15명 이하로 낮추는 학생성취보장제도(Student Achievement Guarantee In Education, SAGE)를 시행해 효과를 보는 주들도 있다.

영국은 ‘계속·고등교육법(The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생활을 위한 기술(Skills for Life: SFL)’ 사업에 따라 16세 이상의 비문해 성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력 미달자, 이민자를 위해 경영혁신기술부, 국가성인계속교육연구원, 국가성인문해수리력 연구개발센터 등을 통해 성인문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 국가별 실태는 각 국가별 관련 기관 누리집과 엄훈(2012), 국립국어원(20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참고.

프랑스는 1988년 설립된 GPLI(Groupement Permanent pour la Lutte contre l'illettrisme)¹³가 비문해력(Illettrisme) 퇴치 사업을 해 왔으며 1998년에 비문해 퇴치를 국가적인 역점사업으로 선언하고 2000년에 국립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ANLCI)으로 개편되고 국가적차원에서 문해퇴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비문해퇴치원 지역센터, 지역 문해교육정보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해교육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 국가비문해퇴치원(ANLCI)에 의해 수정된 '비문해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비문해력은 16세 이상의 개인이 정규 교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없거나, 문어로 간단한 정보를 의사소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¹⁴ 따라서 프랑스에서의 비문해력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영어에서 비문해자를 '어떤 언어로도 (그리고/혹은 어떤 나라에서도)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읽기나 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하다.

프랑스에서는 4개의 비문해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프랑스의 교육부 연구과에서 시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교육부에 의해 평가 업무를 부여받아 국방부가 시행하는 '군 입대일 검사(JAPD/JDC)', '읽기와 수감자 조사(LPP)', ANLCI의 참여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보 및 일상생활 조사(The Information and Everyday Life Survey, IVQ)'가 있다.

독일은 독일성인교육협회(German Adult Education Association,

13 국가비문해퇴치원(National Agency for the Fight Against Illiteracy, ANLCI)의 전신으로, 1988년에 설립되고 1999년에 해체되었다.

14 "Illettrisme describes the situation of individuals over 16 years of age who, although they have attended school, cannot read and understand a text dealing with an everyday situation, and/or cannot communicate simple information in writing." 국립국어원(2014)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35쪽 참고.

DVV)가 문맹퇴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1995년 국제 성인 문해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에서도 14.4%의 독일 성인이 산문 문해력이 가장 낮은 등급인 ‘제1수준(Level One)’에 해당하였다. 2000년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결과 15세 청소년들 중 10%가 최저 등급도 획득하지 못하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6%]. 2010년에는 18-64세 독일 성인 중 440만 독일어 모어 화자와 310만 명의 독일어 비모어 화자가 ‘기능적 비문해력’ 수준에 해당하였다. 2009년에 독일연방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는 그 ‘제1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함부르크 대학 팀에 연구 수행을 의뢰했다. 제1수준 연구(Level One Study)에서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6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2013년 국제 성인 역량 조사(PIAAC)는 16-65세 인구 중 18%가 10살 아동 수준의 읽기 능력을 보인다고 보고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2011년에 성인 문식성 및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전략을 공표한 바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와 시범 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VI. 평생국어교육의 내용 구성

1. 모어 발달과 모어 학습

평생교육의 기초는 모어교육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모어 발달에 따른 모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어 교육의 기초는 문자와 발음의 연계를 통한 표기법 교육이다. 영어 교육에서는 맞춤법의 발달 단계에 대해 Cox(2005: 328-342)에서 표기 학습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어 우리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발달 단계별 표기법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초등학교

교 교육에서조차 한글이 쉽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맞춤법 원리 교육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초등학교에서 맞춤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① 의사소통 이전 단계(Precommunicative: Preschool-Midkindergarten, 2-5세): 문자와 유사한 것을 그리는 시기
- ② 반음성적 단계(Semiphonetic: Kindergarten 말-1학년 초, 5-6세): 문자가 단어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음을 중심으로 문자가 뭉친 단어를 만들.
- ③ 음성적 단계(Phonetic: 1학년 중간, 6세): 들은 소리의 순서대로 문자를 나열한다. 소리와 기호의 관계를 인식한다.
- ④ 이행기(Transitional: 1학년 말-2학년 초, 6-7세):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오류 표기에서 규범 표기로 이행하여 간다.
- ⑤ 관습기(Conventional: 2-4학년, 7-9세): 맞춤법 관습에 적응하여 간다.
- ⑥ 형태 통사기(Morphemic & Syntactic: 5-8학년, 10-13세): 음운, 표기 형태, 통사적 관계를 인식한다.

위 단계 구분은 영어 철자법 연구 결과이지만 아동 발달의 보편성을 생각하면 한글 맞춤법 발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④-⑥ 단계가 초등학교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읽기 교육과 동시에 표기법, 어법 교육이 체계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기 분류는 피아제(Piaget)의 언어 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stage: 7-11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 11-15세)에 걸치는 시기로 우리의 초등 시기 교육과정에서는 어법 특히 표기법 지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평생교육의 기초교육으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 형성기는 2-15세 정도로 보는데 그 발달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문화시대의 외국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책도 이런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나카지마 2012: 31-35).

① 언어 형성기 전반(9-10세 이전)

- 모어문화 학습(1-5세)
- 말하기 학습(2-8세)
- 읽기와 쓰기 기초 학습(4-9세)

② 언어 형성기 후반(9-10세 이후)

- 독해 작문력 함양(초등 후반기와 중학생)
- 추상 개념과 추상어휘 발달(초등 후반기와 중학생)

위와 같은 형성기에 외국 이주민의 이중언어 습득은 학습자에 따라 동시형(simultaneous) 이중언어습득과 순차형(successive) 이중언어습득을 하게 된다.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에게서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동시에 배우므로 전자의 방식이 일어나고, 해외 이민으로 현지어를 배우는 경우는 후자의 경향을 띤다. 어느 경우든 부모나 아동의 능동적 적응이 요구된다.

2. 생애 발달에 따른 평생교육의 내용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능력을 탐구하며 발현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능력 관리를 위해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언어이다. 언어학습이 이루어져야 지덕체의 지육, 덕육(인성), 체육 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육과 덕육은 개인의 삶에서 정체성 파악의 핵심 교육이다. 인간이 평생교육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평생 동안 교육받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은데 각 능력별로 국어능력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어 능력

(1) 모어 습득

- ① 문법 능력: 문자(한글/한자) 해독 글씨 쓰기(서법 훈련) 표기법 교육
- ② 듣기 말하기 능력: 경청과 질문, 대화와 소통, 창의적 비판, 언어예절 훈련
- ③ 읽기 능력: 해독과 독해, 수주별 독서 계획, 평생 독서
- ④ 쓰기 능력: 생활 작문(일기, 수필), 가족 신문, 가족 문집, 보고서, 논설문
- ⑤ 문학 능력: 문학 감상과 비평 훈련, 평생 문학 독서, 시/수필 창작
- ⑥ 언어문화 능력: 언어문화 이해 능력, 다문화 이해 수용 능력

(2) 수어(手語) 학습: 농인을 위해 제정된 수어(수화)가 일반인의 제2 언어로도 필요하다.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강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화언어(ASL: American Sign Language) 수강이 1위 스페인어, 2위 프랑스어 다음으로 3위에 이를 만큼 수어를 많이 배운다. 미국 현대언어학회 보고서(MLA 2013) 참고.

(3) 외국어 학습: 제1/제2 외국어 교육. 독해/작문 능력, 회화(대화, 발표, 토론) 능력

2) 인성 능력: 자아 정체성 탐구를 통한 종합인성교육 함양

- (1) 지성 능력: 지육(지성 교육: 지성과 언어 품위)
- (2) 덕성(감성) 능력: 덕육/정서교육(덕성/감성 교육: 정서와 언어 건강)
- (3) 체력 능력: 체육(건강 교육: 긍정적, 낙관적 언어표현과 언어 건강)

3) 재능(소질)

- (1) 직업 능력: 평생 소질 탐구(직업 소명 의식), 직업 문해력(직장내 소통법, 지도자 소통법)
- (2) 취미(여가) 능력: 문예 창작, 시서화(詩書畵)의 취미, 운동 취미 등 위에 따르면 국어능력은 학습 도구로서의 문해력 함양에서부터 은퇴 후 문예생활과 회고록 작성 등과 같은 취미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

용의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3. 평생국어교육을 위한 언어사용 주체별 내용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언어사용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공동 협력 전략이 요구되는데 각 주체별로 교육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정 교육: 대화 교육(가족 대화, 식탁 교육) 회복. 가족 단계별 생애 교육 필요(결혼 예비학교 등 부모 되는 교육, 육아 교육, 부모 지속 교육, 노년 교육 등)
- (2) 사회 교육: 언어순화운동, 정치문화 개선, 물질만능풍조와 성개방 풍조 전환 등
- (3) 학교 교육: 교사와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과 토론을 활발히 하도록 교사들의 교수법을 바꿔야 한다. 토론 토의식 질문 유도 생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인터넷 검색보다 사색을 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 ① 국어대각성 교육: 말의 힘을 각성하는 국어 의식 고취 국어대각성 교육 실시(사랑의 말이나 욕설이나에 따라 침 분비물의 독소와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는 엘마 게이트츠 교수의 실험, 토마토와 식물에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들려준 것과 소음을 들려준 것의 생장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 농촌진흥청의 실험보고처럼 말의 힘을 일깨우는 국어 각성 교육이 필요)
- ② 꿈을 심는 교육(도전 극복 교육, 탈 입시, 목표 진로 교육), 청소년 자원 봉사 활성화
- ③ 교수 학습법의 혁신: 질문 없는 교실을 질문하는 교실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도록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교수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 ④ 정체성 교육: 자아 정체성, 가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 교육(건국사 교

육, 현대사 긍정), 다문화 이해 교육, 인류애 등 지향

- ⑤ 건전 대안 교육: 건전 문화 공간 제공하고, 청소년 취미 교육, 생활체육 강화(반별 합창대회, 반별 농구대회 등)
- ⑥ 치유 교육: 폭언, 중독 학생 치유 프로그램 다양하게 제공
- (4) 언론 매체 교육: 폭력 영상, 폭언, 소란 프로그램 금해야. 특히 언론 매체의 속어(김새다, 꼬시다, 골 때려, 못 말려, 대박, 짱, 성적 속어(꿀벅지) 등), 은어(훈남, 꽃미남, 비호감, 감성돌, 짐승남), 전투적 스포츠 용어(작렬, 거포 등), 인격비하 표현, 신체언어, 준언어 개선[장단 파괴, 폭언, 고음, 신경질적 대화, 빠른 속도의 보도문(뉴스 항목 줄여 단어의 장단음을 살려 발음해야 함)], 소란스러운 쇼 프로, 한영 혼합 가사 가요 금하고, 외국어 남용(컨슈머 리포트, 디테일하다, 리얼한 상황, 필 꽃혀) 등을 강력히 제재(制裁)해야 한다.

4. 평생국어교육과 교실 속 문맹 퇴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이 시급히 조치해야 할 상황은 교실 속의 기능적 문맹학생들을 문해자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현재 학교 교실 속에는 교사도, 부모도, 정부도 모르는 문맹자들이 10-20% 앉아 있으므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실 속 문맹자 출현의 원인은 다음을 들 수 있다(엄훈, 2012).

- (1) 환경적 요인: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문해 환경 조성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적 문해력(emergent literacy) 환경 조성에 실패하여 비문해자가 나타난다.
- (2) 인지적 요인: 교과서의 단어 표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음운론적 인식능력의 결손에 따른다. 사물이나 사진, 색깔, 숫자, 글자 같은 상징을 읽어 내는 속도인 명명속도(Rapid Automatized Naming;

RAN) 결손과 같은 경우도 나타난다.

(3) 교육적 요인:

- ① 경험적 교수적 결손 문제로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면 읽기 장애 발생함
- ② 학생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도법은 읽기 부진 발생
- ③ 어려운 글, 획일적 교과서 일제식 수업 방식도 원인(읽기 부진아는 읽지 않는 교과서 학습 시간이 재앙 수준임)
- ④ 읽기 능력 부진아는 맞춤형 독서로 최상의 진보 가능하므로 교사 지도 요인 중요
- ⑤ 학습 부진아는 전인격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드러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므로 전인적 지도 요인 중요
- ⑥ 통제 경쟁 효율성 중심의 중앙교육체제를 버리고 핀란드식의 자율 지원 즐거움 지향의 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이들을 치유할 방법은 위의 원인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는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교사가 별도로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것이 어려우므로 담임교사와 국어교사가 협력하는 지도체제라도 갖추어 장기적 훈련과 사랑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해력이 평생국어교육의 핵심능력임을 이해하도록 사범대 교육과정부터 평생국어교육 관점으로 개편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을 계몽하고 교실 속 문맹자의 실태부터 파악해서 이 문제의 계몽 연수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

VII. 맺음말

평생교육은 넓게 보아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언어능력과 사고력은 핵심 능력이므로 국어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학교교과의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을 넘어 평생 발달 단계별 언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평생 국어교육'의 개념을 정립해 평생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고 학교교육은 그 기초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어교육이 인문, 사회, 과학, 예술과 연계되듯이 평생교육도 다양한 인문, 사회, 과학적 전통이 학제적으로 관계되므로 국어교육은 학제적 특성을 다양하게 활용해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국어교육이 문해력(literacy) 증진을 위한 교과로서 더욱 핵심적 역할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문맹(비문해, illiteracy)현상이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중학생 이상의 비문해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인권 보장, 경제 향상을 위해서도 성인의 비문해 퇴치와 학교 속의 문맹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국어교육이 초등학교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본 논문은 2015. 2. 4. 투고되었으며, 2015. 2.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3. 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 (2008),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 (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_____ (2013), 『2013년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_____ (2014), 『자국어 능력 실태 조사와 활용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국립국어원.
- 김중서(1964), 「한국의 문맹률 검토」, 『교육학연구』 12, 한국문해교육협회(2005) 재록.
- 김종철 외(2014), 「국민의 국어 능력 조사 결과 분석」,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 국어 교육 연구소, 39-73쪽.
- 김한별(2014), 『평생교육론』, 학지사.
- 나카지마 카즈코 편저(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 캐나다, 미국」, 『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과컴.
- 노명완·박영목 외(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5), 「국가경쟁력과 국어교육」, 『국어교육』 117, 229-282쪽,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_____ (2012),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본 국어과교육」, 『국어교육』 138, 1-40쪽, 한국어교육학회.
- 박인중(2009),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19-2호, 33-53쪽, 국립국어원.
- 얼 쇼리스 저, 고병헌·이병곤·임정아 공역(2006), 『희망의 인문학: 클레멘트 코스, 기적을 만든다』, 이매진[원저: Earl Shorris (2000), *Riches For the Poor; Clemente Course in the Humanities*].
- 엄훈(2012), 『학교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 이형래(2006), 「공무원의 직업 문식성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수 외(2001), 『한국 성인의 문해 실태에 관한 OECD 국제비교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 외(2002), 『한국 성인의 비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언 외(2005), 『한국의 성인 직업 기초 능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외(2014),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 성인 역량 조사(PIAAC)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갑부(2012),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 최제만(1959), 「문맹퇴치교육에 관하여」, 『문교월보』 49호, 문교부.
- 한국교육개발원(1989), 『한국인의 문해 실태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_____ (1989), 『한국의 문해 실태와 문해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한국문해교육협회 편(2005), 『한국의 문해교육』, 문음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2013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승희(2001), 『평생학습과 학습 생태계』, 학지사.

- 황종건 외(1987), 『한국 도시 여성의 문해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교육협회.
- Common Core State Standards Initiative (2010).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 /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U.S.A.
- Cox, Carole (1988, 2005). *Teaching Language Arts: A student-and Response-Centered Classroom*. Pearson Education, Inc.
-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2015). Enrollments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in United State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Fall 2013, MLA. www.mla.org/pdf/2013_enrollment_survey.pdf
- OECD (2013). *OECD Skills Outlook 2013: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 UNDP (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UNDP (www.undp.org).

국어교육과 생애주기(평생)교육의 학제적 접근

—평생국어교육의 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민현식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넓게 보아 학교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 생애에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이념으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직업교육, 은퇴 후 교육 등을 모두 포괄한다. 평생교육에서도 언어와 사고력은 핵심 능력이므로 국어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학교교과의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교육을 넘어 평생 발달 단계별 언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평생국어교육>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평생교육이 종합적, 융합적 학문의 성격을 띠므로 평생국어교육학문이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띠는 당연하다.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국어교육이 문해력(literacy) 증진을 위한 교과로서 더욱 핵심적 역할이 요구된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문맹(비문해, illiteracy)현상이 10% 정도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중학생 이상의 비문해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인권 보장, 경제 향상을 위해서도 성인의 비문해 퇴치와 학교 속의 문맹자들을 퇴치하기 위한 국어교육이 초등학교단계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어 평생교육, 국어교육, 문해력, 비문해, 학제성

ABSTRACT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iteracy in the Lifelong Korean Education —

Min Hyunsik

Lifelong education indicates education and learning involved in one's entire life, emphasizing learning all through lif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nd covers home education, social education, schoo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post-retirement education. As language and thinking are also core abilities in lifelong education,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greater. Therefore,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s to establish the idea of 'lifel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helps language education for lifelong developmental stages beyo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tool subject of school curricula. Lifel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ies are interdisciplinary as lifelong education has a feature of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studies.

In the dimension of lifelong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required to play a more fundamental role as a subject to promote literacy. Considering illiteracy phenomenon which appears as about ten percent among the national population in developed countries globally, the number of illiterate students among teenagers are increasing in Korea. For safeguard for human rights and economic improve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eradicating adult illiteracy and illiterates at schools should be exhaustively implemented from elementary school.

KEYWORDS lifelong education, Korean education, literacy, illiteracy, interdisciplinary